이정주 작 '과꽃과 보자기'

꽃잎 날리고 소꿉놀이

이정주·이선저 2인전
무등갤러리, 8～14일

광주·전남여성작가회 회원인 서양화가 이정주씨와 이선저씨가 8～14일 무등갤러리에서 2인전을 연다.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여성작가회 회장을 지냈던 이정주씨와 사무국장을 맡았던 이선저씨가 봄을 맞아 자연 속 꽃과 나무로 축제를 꾸민다.

이정주씨는 '꽃잎 날리고'를 주제로 한국적인 느낌을 주는 유화 작품들을 선보인다. 코스모스, 백일홍, 과꽃, 야생화 등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함으로 풍경을 수놓는 꽃들을 화폭에 담았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장미꽃보다 우리 민초 같은 작은 꽃들이 더 큰 감동을 준다"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광주대 명예교수인 이정주씨는 이화여대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그동안 14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소꼽놀이'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이는 이선저씨는 자연의 색감을 화폭으로 그대로 옮겨온 작품들을 전시한다.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5월 신록을 피워내는 나무의 색과 경쾌하면서도 리듬감 있게 표현된 이미지들이 한 곡의 '봄의 왈츠'를 만들어내는 작품들이다.

이선저씨는 조선대 응용미술과를 졸업했으며, 상하이아트페스티벌 부스전, 동북아시아교류전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236-252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선저 작 '소꼽놀이'

5·18 민중항쟁 34주기 … 공연 잇따라

상처 위로하고 정신 되새긴다

'빛골 아리랑'의 한 장면.

'빛골 아리랑' 23～25일 문예회관
토박이 '글러브와 스틱 그리고 … '
신명 마당굿 '꽃등 들어 님 오시면'
연극 '푸르른 날에' 6월 13일부터

5·18 민중항쟁 34주기를 앞두고 오월 광주를 다양하게 풀어낸 공연 작품들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오월 상처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월 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작품들이다.

지난해 제2회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주제공연으로 선보였던 뮤지컬 '빛골 아리랑'이 오는 23～25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앙코르 공연된다.

'빛골 아리랑'은 굴곡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이야기한 작품으로, 초연 당시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 완성도 높은 안무로 창작뮤지컬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국내 뮤지컬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희성(연출·각색), 김은성(대본), 오재익 등 초연 창작스태프가 다시 호흡을 맞춰 음악, 영상, 소품 등을 보완·수정했다.

배우진은 대거 교체됐다. 주인공 송막이 역은 뮤지컬·연극배우로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장이주가 맡고, 이정미·이미경씨도 3월초 치러진 오디션을 통해 합류했다. 만 7세이상 관람. 관람료 3만·2만·1만원.

'오월 3부작'으로 꼽히는 '금희의 오월', '청실홍실', '모란꽃' 을 비롯해 '상중(喪中)' 등 오월 관련 연극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온 극단 '토박이'는 올해 청소년 연극 '글러브와 스틱 그리고 찐찌버거'로 관객들을 만난다. 9～31일 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3시·6시 광주예술의 거리 민들레 소극장.

이번 작품은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과 국가 폭력인 5월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5월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고교 교사 김 선생은 학교 폭력으로 체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세명의 아이들을 밴드부에 받아들인다. 체벌이 아닌, 음악적 감성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김 선생의 노력으로 아이들은 학교 축제에 나갈 기회를 얻지만 아이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갈등하게 되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만다.

단원들이 함께 대본을 썼으며 박정운씨가 연출을 맡았다. 박문옥씨와 상식이 밴드(드럼 조인호·기타 이진우·베이스 최정식)가 음악을 맡았다. 임해정·강중원·박정우·박유정·장도국·박정운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5000원. 문의 062-222-6280.

'애꾸눈 광대'

놀이패 신명은 9～10일 살아있는 모두를 위한 위로의 굿판 '꽃등 들어 님 오시면'을 공연한다. 9일 오후 8시, 10일 오후 3시·7시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옛KBS).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역사적 아픔을 마당굿이라는 형태로 녹여내 온 놀이패 신명은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망자의 넋을 기리고 재담·노래·춤으로 상주를 위로하는 놀이굿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일 다시래기'라는 부재를 달고 있는 이 작품은 진도 지방에서 전해오는 장례놀이인 다시래기를 차용했다. 한국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한다. 마을사람과 가족들이 처참하게 몰살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한을 가슴에 묻어 온 남자가, 백발이 된 지금에야 가족들의 장례를 치러주게 된다.

박강의씨가 대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지정남·김호준·오숙현·김은숙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값은 따로 받지 않으며 감동을 받은 만큼 준비된 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 예약자 우선 입장. 예약문의 010-3065-4543, 062-527-7295.

지난해 초연됐던 1인극 '애꾸눈 광대'는 오는 14일, 2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극장에서 열린다. 5·18 부상자동지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지현씨의 자전적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한 1인극으로, 지난해 상설공연을 시작으로 서울 등에서 공연됐던 작품이다.

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김광복)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정기연주회 '임을 위한 행진곡' 공연을 갖는다.

성악 앙상블과 협연하는 '오월, 젊은 넋의 노래', '무등산 자장가', '임을 위한 행진곡', '빛이 있는 땅'을 들려주며 장선우 감독의 영화 '꽃잎'의 테마를 들려준다.

가장 기대작 중 하나는 '페스티벌 오! 광주' 참가작으로 6월 13～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연극 '푸르른 날에'다. 신시컴퍼니가 제작한 '푸르른 날에'는 2011년 서울 드라마센터 초연 당시 대한민국연극상에서 대상을 비롯 3관왕을 차지하는 등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후 매년 5월이면 '푸르른 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공연됐고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차범석 희곡상을 수상한 정경진씨 작품으로 고선웅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초연 멤버들이 그대로 출연한다. '신파 통속극'을 표방한 '푸르른 날에'는 5·18 광주 항쟁 속에서 꽃핀 남녀의 사랑과 그후 30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5월의 비극성에 매몰되지 않고 유쾌한 극적 장치로 색다른 감동을 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성악 중·고등부

〈심사위원〉
박 계(조선대 교수)
김용진(전주대 교수)
임해철(호신대 교수)
박미애(광주대 교수)
김철웅(목포대 교수)

◇중등부 1,2학년
▲최고상
9 김사랑(용두중2)
▲은상
6 김민수(전대사대부중2)
11 이정기(목포하당중2)
▲동상
1 이진성(전주예술중2)
3 김장현(유덕중2)

◇중등부 3학년
▲금상
15 배에스더(수피아여중3)
▲은상
18 이소윤(성덕중3)
▲동상
12 정고은(광주금구중3)
14 임여경(신가중3)

◇고등부 1,2학년
▲최고상
10 이산아(전남예고2)
▲금상
26 노유빈(광주경신여고1)
62 이소정(동아여고2)
▲은상
3 성유승(광주예고2)
11 김재나(광주예고2)
25 조혜진(광주예고2)
28 이하림(광주예고2)
▲동상
1 공희원(광주예고1)
8 박찬미(광주예고2)
21 정용호(광주예고2)
23 이현승(전남예고1)
27 김유정(전남예고2)
31 김수연(광주세광1)

◇고등부 3학년
▲최고상
39 류수인(광주예고3)
▲금상
42 문진홍(전남예고3)
49 최은진(광주예고3)
▲은상
36 김지혜(광주예고3)
45 임하은(수완고3)
52 나규현(광주예고3)
▲동상
13 김진경(광주숭일고3)
29 이승은(전주예고3)
43 김예찬(문태고3)
44 장수빈(광주예고3)
50 정은영(풍암고3)
54 최하은(살레시오여고3)
56 조바울(광주숭일고3)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9일 호신대서

어느 때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마음 깊이 다가오는 5월이다.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는 5월 행사의 주제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어머니'로 정하고 아름다운 가곡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래도 준비했다. 9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 8층 티브라운.

이날 함께 배우는 노래는 윤연모 시에 정덕기씨가 곡을 부친 '아버지의 이름'과 유경환 시, 박판길 곡 '어머니'로 테너 박현씨와 소프라노 심옥효씨가 들려준다.

또 테너 이대형씨와 소프라 이현경씨는 오문옥 시 이안삼 곡 '우리 어머니', 하옥이 시 박판길 곡 '어머니'를 선사한다. 시낭송 코너에서는 서애숙 시인이 자작시 '어머니'를 낭송한다.

20대 간호사 10명으로 구성된 '메디필 싱어즈'가 출연, '별'과 '정든 그 노래'를 들려주며 세월호 추모곡으로 '비가'와 '편지'를 함께 부른다.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는 매월 둘째 금요일 열리며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 거리를 제공한다. http :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